

2004. 12. 8(水)

第30回 韓經研 포럼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 주 제 : 1. 최근 경제동향과 2005년 전망
2. 2005 경영환경 현안과 전략적 대응과제
- 연 사 : 1. 허찬국 소장 (본원 거시경제연구센터)
2. 이수희 소장 (본원 기업연구센터)

최근 경제동향과 2005년 전망

2004.12

허 찬 국
한국경제연구원

(요약)

2004년 한국경제의 특징

심각한 양극화

내수 부진 ⇔ 수출호조, 제조업 호조 ⇔ 서비스업 부진

하지만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 기록

주요 불안요인: 고유가, 중국 경착륙, 노사관계불안

2005년 예상되는 특징

수출 둔화 불구 내수 점진 회복으로 양극화 해소되나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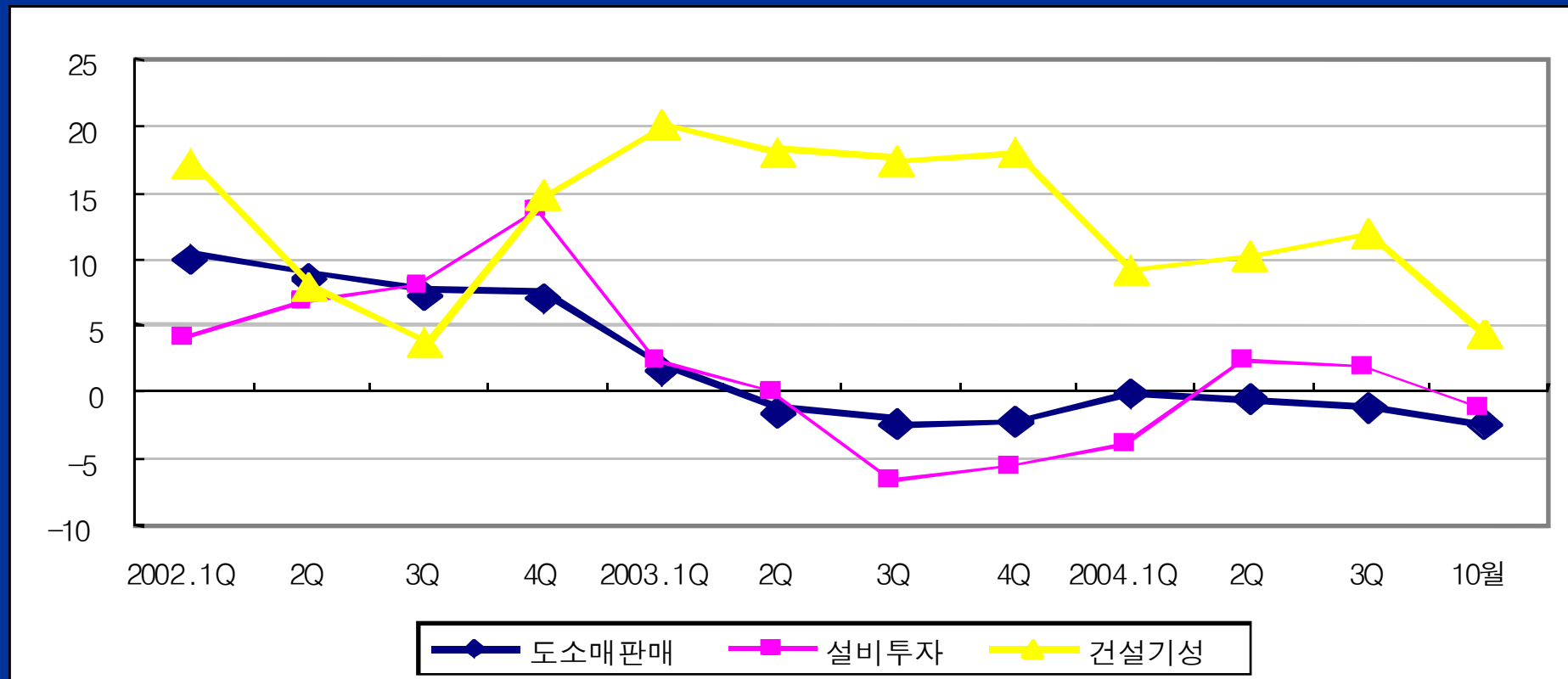
주요 불안요인: 환율불안, 주요경제 성장둔화,

정치·사회갈등 심화와 경제심리 위축

1. 최근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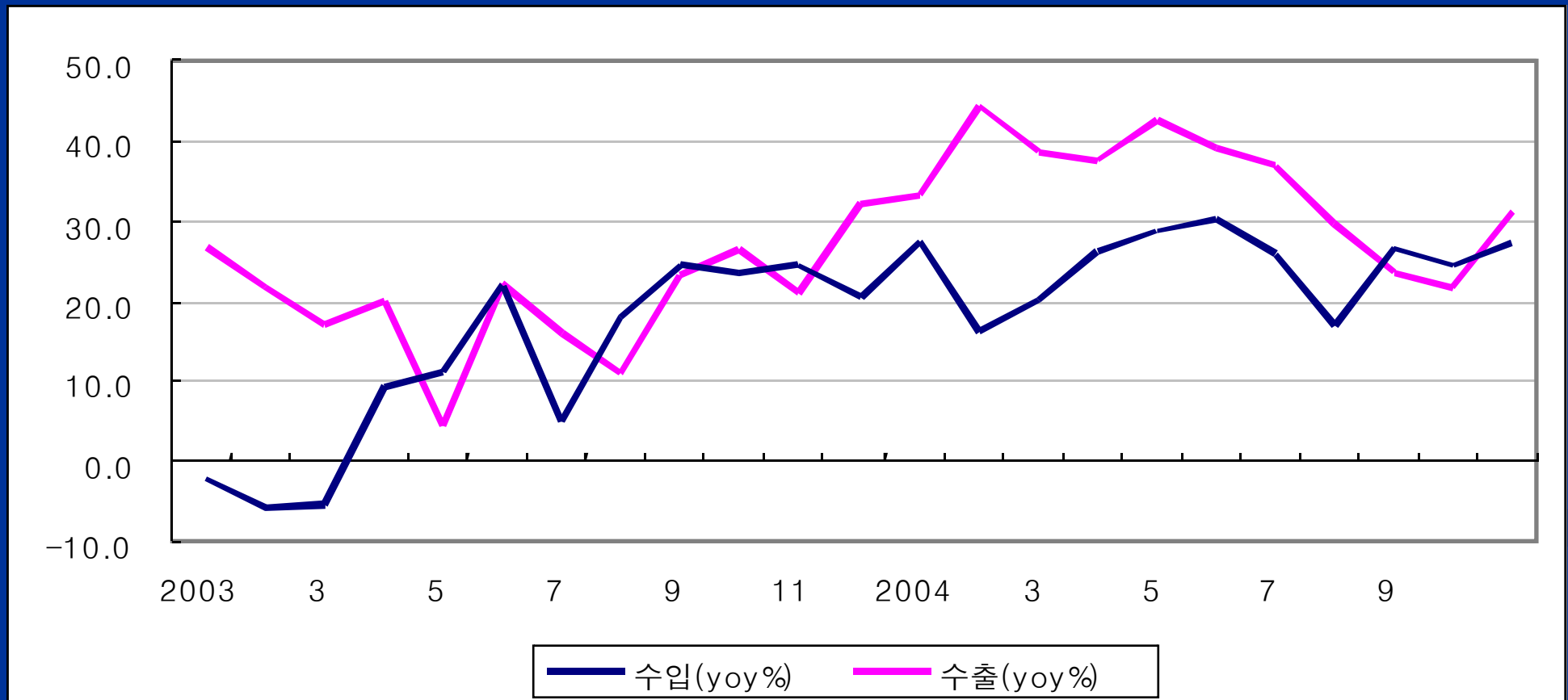
- 내수부진 지속

- 도소매판매액이 3/4분기 0.9%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2.3%감소
- 설비투자 회복세 미약 (10월 중에는 -0.9%)
- 건설기성액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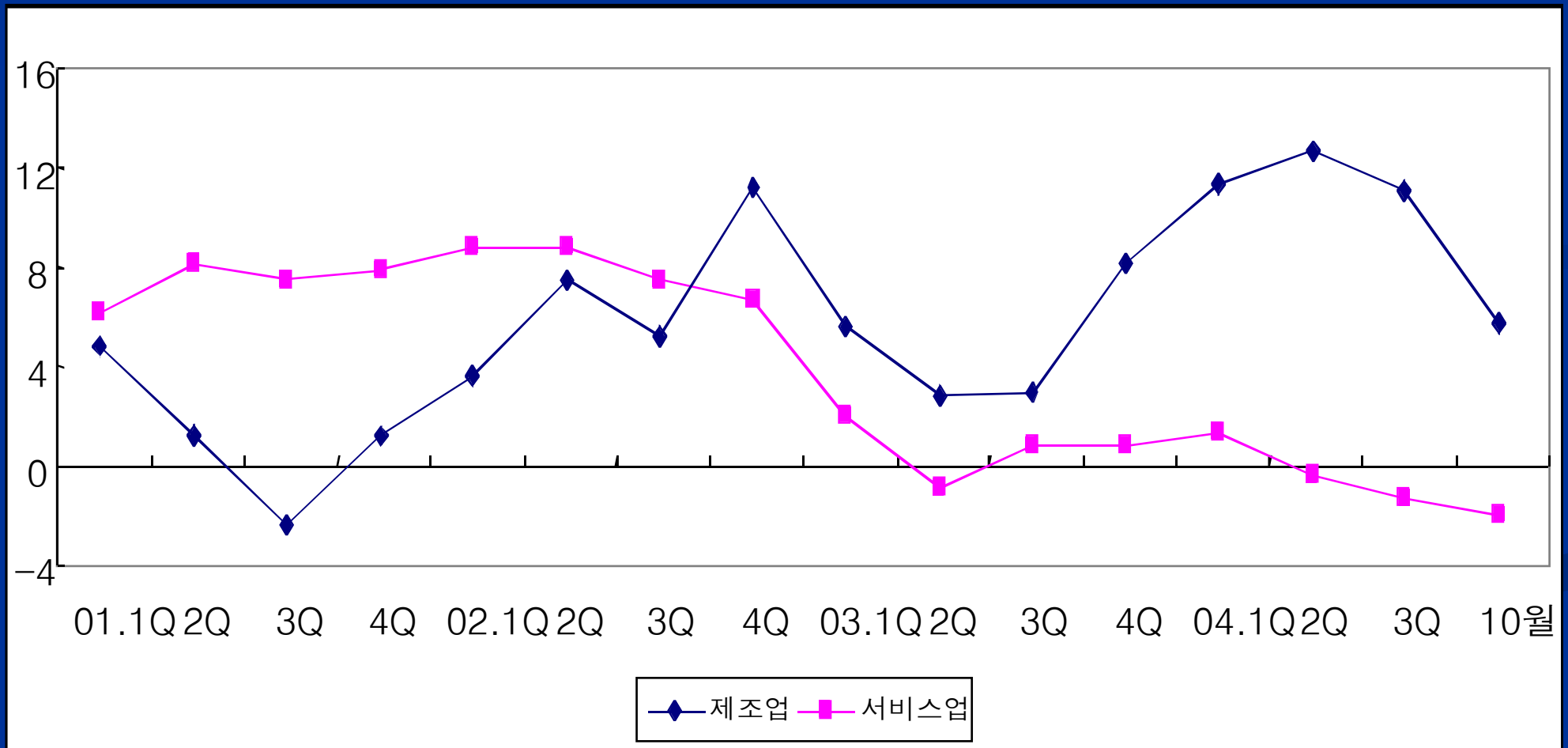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 소폭 둔화 불구 호조세 지속

- 수출증가율은 5월 (41.8%) 이후 점차 둔화되어 11월에는 30.3%로 하락 (기저효과)
- 9월과 10월 중에는 수입증가율을 하회했으나 11월 약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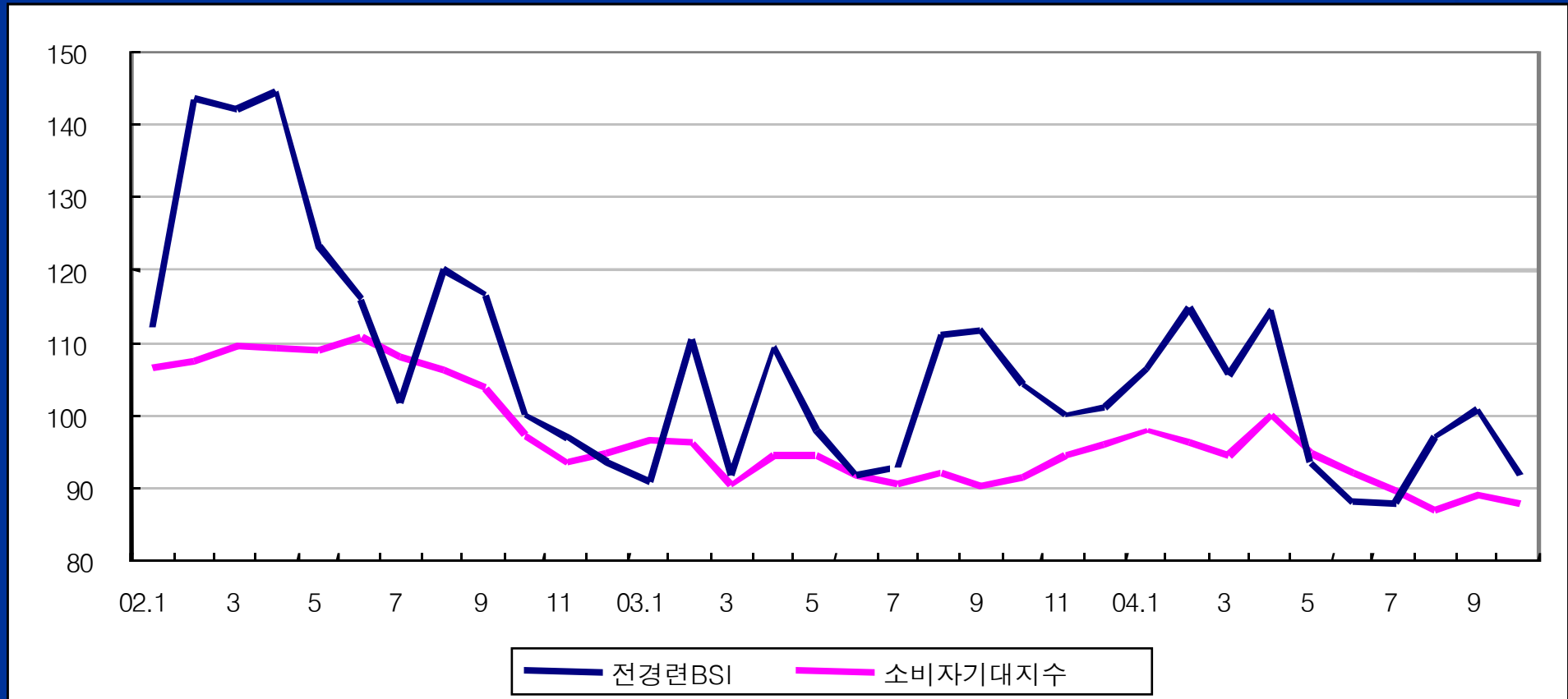
서비스업 여전히 부진

- 수출주도형 경기 회복세로 제조업생산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 내수업종인 서비스부문은 금년 들어서도 여전히 부진



- 내수 부진 속에 수출 둔화조짐으로 경제심리 회복지연

- 전경련BSI는 5월 이후 기준치인 100을 5개월 연속 하회
- 소비자기대지수도 5월 이후 하락세 지속



II. 대내외 여건

- 대외여건: 중립, 또는 다소 부정적

- 달러약세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 없는 한 약세 지속
- 국제유가 : 중동지역 불안 등 유가불안 요인 상존
- 중국경제 : 금리인상, 위안화절상 등 경기하락 가능성
- 선진국경제 : 미국금리인상 여파로 회복세 약화

→ IMF는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에 비해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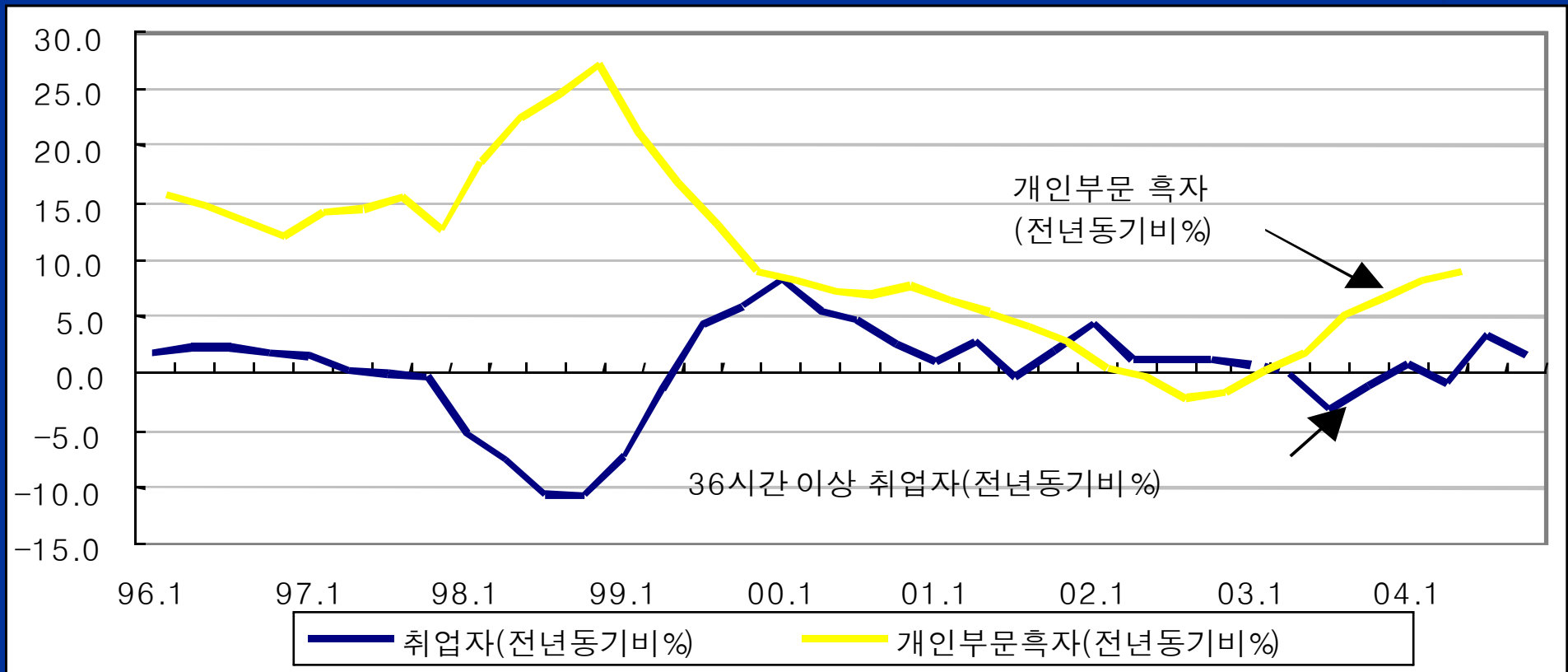
	2004년	2005년 (10월 전망)	2005년 (4월 전망)
세계	5.0	4.3	4.4
미국	3.6	2.9	3.1
중국	9.0	7.5	8.0
유로지역	2.2	2.2	2.3

-대내여건: 점진적인 개선

• 소비부진의 구조적요인들 개선 조짐

√ 고용사정 : 2003년말 이후 취업자 증가율 소폭이나 지속적 개선

√ 가계의 재무구조 :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 흑자 증가율이 2002년 하반기 이후 회복



- 정부의 내수회복 노력 지속

- √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발표

- √ 7월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편성(1조8283억원)

- √ 8월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 √ 8월 열린우리당 감세정책안 발표(소득세율 인하 등)

- √ 9월 재정지출 확대(6조8000억원) 계획 및 에어컨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 발표

- √ 10월 열린우리당 재정지출 추가 확대 방침 발표

- √ 11월 2005년 예산 확대 편성

- √ 11월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III. 2005년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수출증가율 둔화로 올해보다 낮은 4.1%로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

- 내수는 소폭 개선 전망

 - √ 내수의 회복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흡

 - 그러나 내수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는 내수회복 전망

- 전망의 위험요인

 - √ 고유가 → 국내물가 및 실물경제에 부담, 세계경제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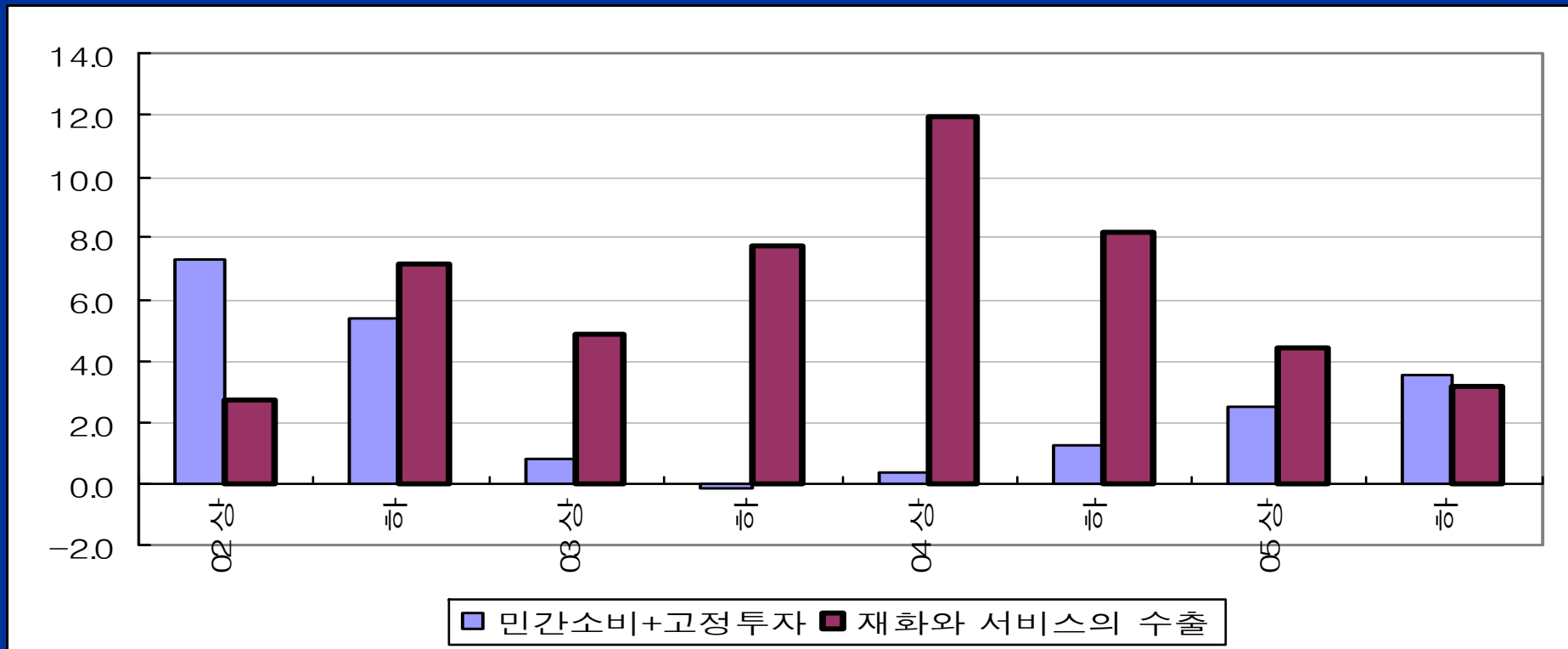
 - √ 4대 법안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 및 갈등고조 → 경제심리 위축 지속

 - √ 환율 불안 증폭 과 원화절상 지속 → 수출 증가세 둔화 요인

- 국내외 위험요인 현재화 되면 성장률 2%대 하락 가능

• 내수와 수출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2005년 전망의 전체적인 모습

√ 수출 기여도가 점차 하락하고 내수부문(민간소비+고정투자)의 기여도는 점차 상승



- 소비자물가 증가율: 3.3%로 안정될 전망

- 유가 안정, 완만한 내수회복세, 원화환율 절상으로 물가상승압력 완화

- 경상수지 흑자: 올해 보다 낮은 약 130억달러 전망

- 수출증가세의 둔화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반면, 수입은 내수 점진적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율 둔화세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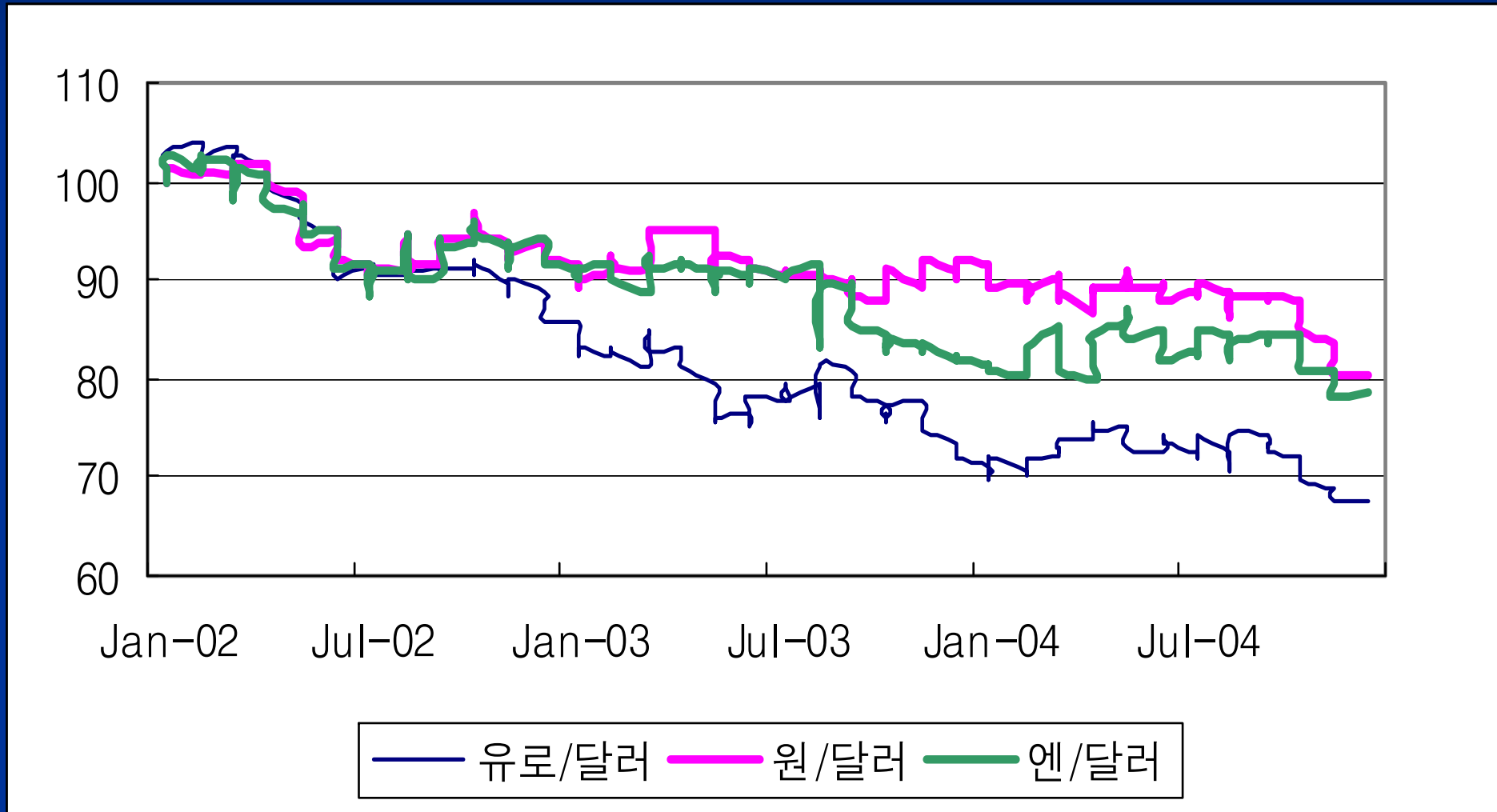
- 장기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 이어질 전망

- 투자심리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콜금리의 추가적인 인하 예상
- 하반기에는 점진적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할 전망

환율은 '04년 말- '05년 까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

- 최근 달러약세의 根源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 전체적자의 규모 : GDP의 6%에 근접
 -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제일 큼 : 2003년 미국의 對中 수출은 전체 수출의 4%, 중국에서 수입은 전체수입의 12%
- 對中 무역적자해소를 위해서 위안화 평가절상 불가피
 - 미국의 대중수출증대, 중국의 대미수출 감속 필요
- 위안화 절상조치는 원화의 절상압력으로 작용 예상
 - 歐美에서는 유로화에 비해 엔화 등 아시아권 통화가치 조정이 미흡하다는 시각
- 외환시장에서 이러한 기대 팽배로 위안화 절상 시점 까지 환율불안 지속 가능성 큼
- 아울러 그 동안 원화절상 저지노력의 부담, 내수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 증대도 중요한 원인
- 내년에도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

<그림 1> 2002년 이후 주요 환율 및 원/달러 환율 추이



각각 2002년 초 환율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여 계산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세 보일 전망

- 카드채, 내수부문 中소여신 부실 증가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됨
-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2004년 말 수준에 머무를 전망
 - 단기 정책금리 (콜금리) 인하
 - 수출증가세 둔화, 완만한 내수회복,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따라 투자심리 개선이 미약
- 하반기에는 점진적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할 전망
-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직접적 구축효과 (crowding out)는 미미할 것이나 지속적 재정상황 악화는 향후 장기금리를 높일 것임

< 표 1 > 2004~2005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3.1	4.8	3.5	4.6	4.1
민간소비	-1.4	-0.8	2.0	4.3	3.2
설비투자	-1.5	5.0	7.5	8.8	8.2
건설투자	7.6	2.0	-0.4	3.1	1.5
경상수지(억달러)	119.5	274.3	69.5	63.6	133.2
수출 (증가율, %)	1973 (21)	2558 (30)	1358 (9)	1390 (6)	2748 (7)
수입 (증가율, %)	1753 (18)	2180 (24)	1226 (16)	1264 (13)	2490 (14)
원/달러 환율(평균)	1191.7	1144.8	1038.4	1009.0	1023.7
회사채 수익률(연%, 평균)	5.4	4.4	3.8	4.4	4.2

전망 하방위험요인 (downside risk)의 구체적 효과

- 대외위험 요인: 고유가, 환율추가절상, 세계경제 감속
→ 수출둔화, 내수회복 지연
- 국내위험 요인: 정치사회적 갈등고조 → 경제심리 위축 지속
→ 내수회복 지연

<표 2> 하방위험을 고려한 전망

하방위험에 대한 가정	성장률(%p)	CPI(%p)	경상수지(억\$)
A. 국제유가 (5\$ ↑)	-0.3	+0.4	-19.4
B. 환율절상률(3%p↑)	-0.2	-0.3	-16.5
C. 세계교역량(1%p↓)	-0.3	+0.1	-11.7
대외적 위험요인 모두 발생 (A+B+C)	-0.8	+0.2	-47.6
D. 소비기대지수(8p↓)	-0.5	-0.3	+21.0
대내외적 위험요인 모두 발생 (A+B+C+D)	-1.3	-0.1	-26.6

환경연포럼

2004.12.8

2005 경영환경 현안과 전략적 대응과제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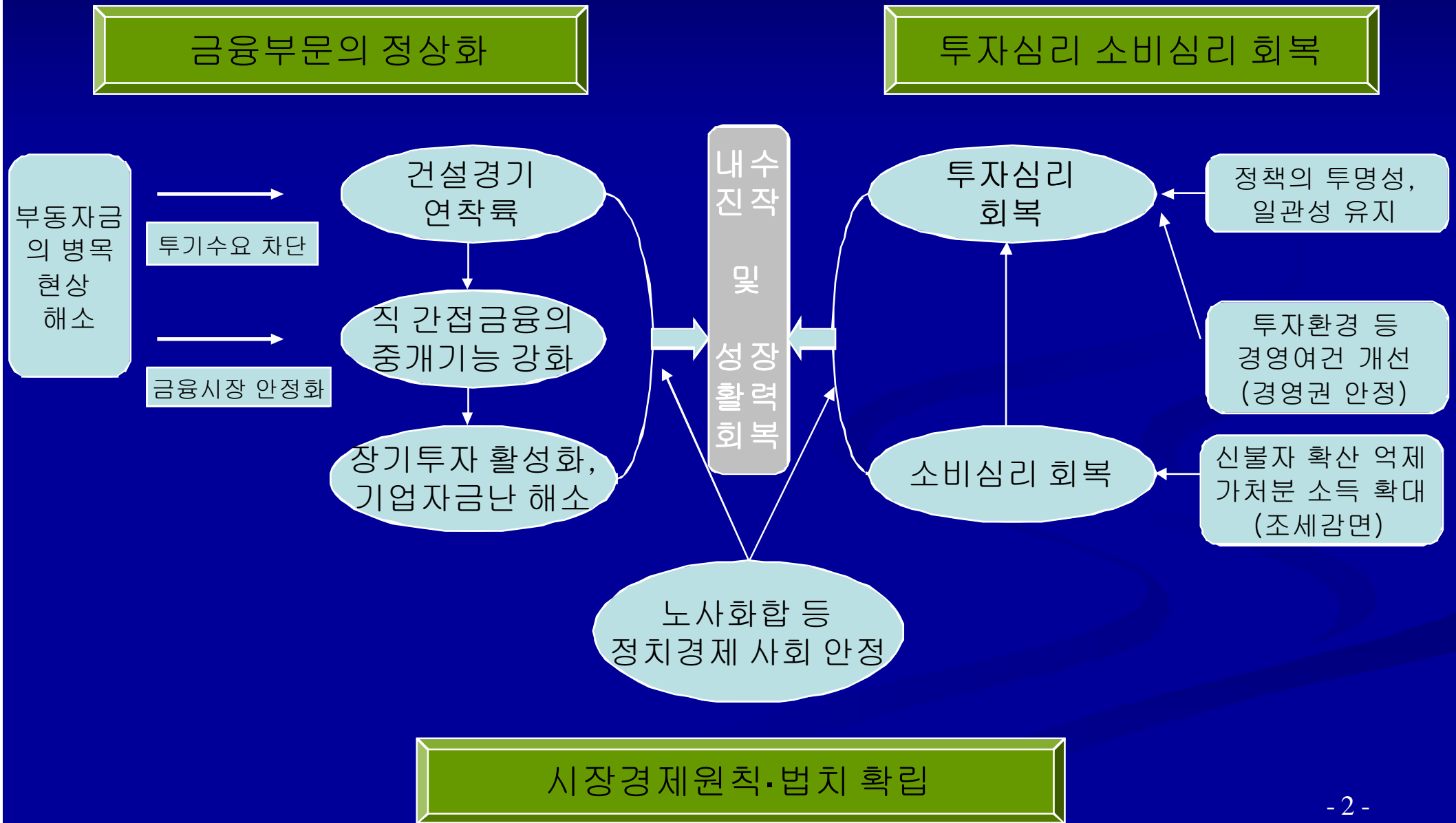
정책환경

1. 경기진작·성장활력 회복방안
2. 현안 정책과제(국회 계류)

위험요인과 전략적 대응과제

1. 원고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2. 경영권 안정
3. 투자기회의 포착과 역량 확대
4. 노사관리(고령화, 주5일제)
5. 경영패러다임 변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

정책환경(II): 경기진작·성장활력회복방안



정책환경[II]: 현안 정책과제(국회 계류)

금융 구조개혁

- 방카슈랑스 보완대책
- 벤처 제3시장 활성화
- 적대적 M&A 방어대책
- 한투 대투 조기 매각
- 증권집단소송 보완대책

투자 지역개발

- 한국형 뉴딜사업 법안 (민자유치법 등)
- 기업도시건설 지원책
- 지역 발전특구 지정

조세시장 개방

-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 쌀시장
- 개방협상 대책



내년 거시정책 운영 방향 확정
건설경기 활성화, 내수소비 회복, 일자리 창출

위협요인과 전략적 대응과제

1. 원고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2. 경영권 안정
3. 투자기회의 포착과 역량 확대
4. 노사관리(고령화, 주5일제)
5. 경영패러다임 변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

원高

단기적인 수출 둔화 불가피

- 세계 수요 둔화 가능성
- 교역조건 악화
- 첨단기술력 확보 미흡

환차손 최소화

- 사내 외환수급의 일치
를 위한 통합·조정
- 환율중립적 선물·옵션
기법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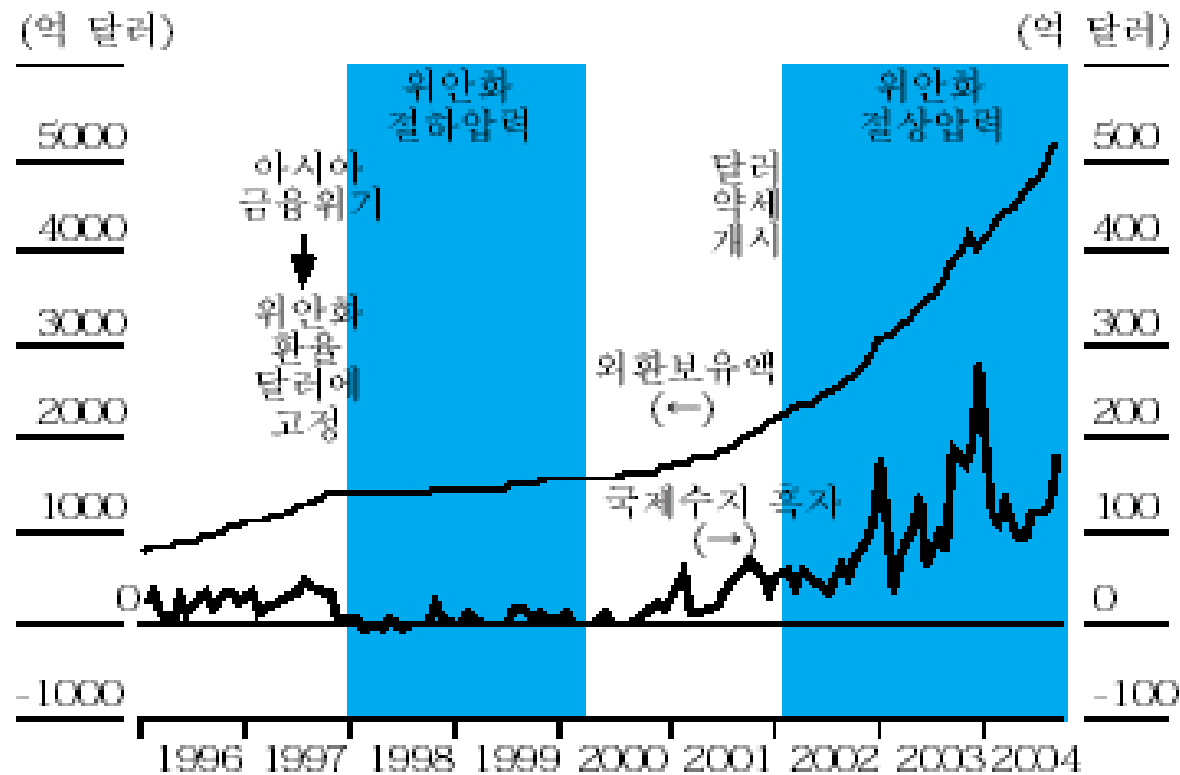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 환율하락에 따른 물가안정
→ 소비 및 투자 여력 증대
→ 내수경기 활성화

수출경쟁력 제고

- 첨단 기술력 확보
- 생산성 향상
- 현지생산 확대

중국의 월별 국제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추이



주 : 2003년 연말 외환보유액은 2003년 12월 말에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한 450억 달러를 제외한 수치이며, 국제수지 흑자액은 이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주요국 통화가치의 달러 대비 절상률

(단위: %)

	1999년 초 대비	2002년 초 대비
유로	12.3	46.4
일본 엔	8.5	27.6
캐나다 달러	28.2	34.9
한국 원	9.7	23.0
싱가포르 달러	1.7	12.5
중국 위안	0.0	0.0
말레이시아 링깃트	0.0	0.0
대만 달러	-0.6	8.1
인도네시아 루피아	-12.8	16.2
태국 바트	-8.7	11.0

주: 2004년 11월 넷째주 기준 각국 통화가치의 변화율, 즉 “각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달러/각국 통화)의 변화율

자료: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

위안화 절상*의 예상효과

- 1) 1980년 후반 엔고와 같은 한국 경쟁력제고 효과
: 한·중 수출재화간 경쟁관계에 착안
- 2) 중국 수출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대중 수출감소 효과
: 한국의 대중수출의 3/4이 중국의 수출용 부품, 중간재임에 착안. 또한 중국의 긴축정책과 맞물려 대중 수출 위축 가능성

*: 위안화 절상에 따른 원절상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원화가치의 실질실효 환율은 중국에 비해 저평가될 것이라는 전제

외국자본의 M&A 위협

□ 시가총액 20대기업
외국인 지분비율

■ 외국자본 타깃 주요 기업들

 대한해운	노르웨이 굴러NG가 지분 30.56% 기습 매입
 현대상선	굴러NG(5.77%)와 스타뱅크(6.39%)의 연대 가능성
 SK	유럽계 펀드 쇼버린이 지분 14.99% 매입 후 경영권 간섭 시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4%.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된 경영권 방어 힘들어짐
 현대자동차	외국인 지분율(56%)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19%)보다 크게 높음

※ 사진은 작년 쇼버린 자산운용 대표가 SK의 일부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 외국자본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미국의 방어장치들

내용	미국	한국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안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중단·금지	연방법으로 규정	없음
내국인 주주의 과반수 동의 없는 외국인 인수합병 금지	인디애나주 등 시행	없음
이사회 판단으로 인수 거부	주별 입법	없음
인수 시도자의 의결권 제한	주별 입법	없음
이사회 결의만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제도	주별 입법	없음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내부유보 현황

- 477개 상장법인(12월말 결산법인): 평균 411.9%
477개사 중 81개사가 1,000% 이상
- 10대 그룹 상장사 내부유보율(자본대비 잉여금비율)
505.4%(2003년 말) → 593.9%(2004년 9월 말)
- 롯데: 1,753%(306%p ↑)
S K: 1,124%(158%p ↑)
삼성: 987%(138%p ↑)
※ 2004년 9월말 현재(2003년 말 대비)

노사관계·고령화

- 참여정부 2차년도인 2004년 중 노사협상과정에 정부 개입 자제 경향
- 현재 일련의 동투양상이 전개중이나 참여율 저조
- 2005년 중에도 비정규직 문제와 공무원노조 이외에 특별한 현안이 제기되지 않을 전망
-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기업별 노력이 더욱 중요
- 이와 함께 2005년 중 기업의 노사관리는 기업 내 인력의 고령화 및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2005.7.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비한 인력 활용의 중요성 부각전망

최근 노사 관련 추이 지표

(단위: 건)

제목	2002	2003	2004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 추이	26	32	33 (A)
노동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사용자 추이	6	14	23 (B)

주: (A): 9월말 기준, (B): 상반기 기준

자료: KOTRA 국정감사자료, 법무부 국정감사자료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단위: 만명, %)

집계	2001	2002	2003
노동계 집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736(55.7)	754(55.3)	784(55.4)
노동부 집계	360(27.3)	400(29.0)	460(32.6)

자료: 매경, 12월 6일

고령화 논의와 근로자의 불안감

- 최근 고령화 논의는 기업 임직원의 막연한 불안감 야기
 - 국민연금제도 폐지와 같이 사회적 이슈들이 봉급생활자의 노후 설계에 대해 불안감 조성
 - 언론은 문제제기 수준에 그칠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연금제도, 공적노후안정보호 등 노후생활안정에 대한 제도나 정책들이 아직 논의단계에 그치고 있음
-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도 미미한 실정
 - 상시 구조조정체제하에서 성과에 따른 퇴출가능성에 대해 고용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 부재
 - 인력순환 차원보다는 기업생존차원의 구조조정이 일반적

불안감 조성의 배경

- 기업인력과 관련한 고령자 현안은 국가적, 거시적 측면이 강함
 - 고령화 대책 논의 = 국가주도형 아젠다 인식 경향
- 기업 스스로 심각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
 - 경쟁력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젊고 우수한 인재 유인할 수 있다는 믿음
 - 아직 고령화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
-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노후불안감은 재직중인 임직원의 안정적, 생산적인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

기업의 고령화대책 시급

- 단기/중장기적으로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을 판별하여 그 심각성을 예측, 대응방안 마련 시급
 - 사업장내의 인력구조 고령화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
 - 인력구조의 고령화 정도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과연 고령화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독립적 영역으로 남아 있는가” 확인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인력구조 고령화 영향을 고려하여
 - 향후 대응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기업인력의 고령화추세

퇴직연령	모든 기업/노동자 비중								평균퇴직연령 (세)	
	54세 이하	55	56	57	58	59	60	61+	평균	중앙값
기업	0.9	46.4	5.8	11.4	21.2	1.1	10.0	3.2	56.7	56.0
노동자	0.4	45.5	5.0	14.8	24.6	0.8	7.1	1.8	56.6	56.0

주: 한국 중·대기업의 정년퇴직 연령으로 2001년도 기준
 자료: 노동부, 고용인원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조사

주요산업인력의 고령화 현황

산업	2000년	2002년	2003년 5월
조선	39.5	40.4	40.7
철강(포스코)	37.4	40.2	41.3
기계(대우종합기계)	39.5	40.4	40.7
자동차(현대자동차)	36	37	38
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세)	37.1(1990 : 32.6)		
평균 근속년수(년)	5.8(2002 : 5.6)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기업의 단계별 대응방안

- 고령화의 영향 정도에 따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기업차원에서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사회보장체제의 단기간 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단계별 대책마련이 바람직
 - 단기대책으로는 고령인력 운영이 가능한 체제 구축과 고용안정기반 확립
 - 계속 고용,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제2인생 설계 등 다양한 이슈들이 검토중이며 일부는 시행중
 -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진전정도와 영향도를 감안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 비교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일본과 대응진도가 빠른 유럽의 기업을 벤치마킹
 -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부정책 유인을 추진

주요업종의 생산능력지수 추이

	섬유산업	석유화학	철강산업	조선	IT 산업
1995	117	75	74	71	30
1996	111	80	78	89	40
1997	106	87	81	93	44
1998	100	96	93	96	56
1999	99	98	98	96	78
2000	100	100	100	100	100
2001	100	102	101	104	111
2002	97	104	104	104	124
2003	94	110	105	104	141

주: 2000=100

자료: 통계청, IT 산업의 경우,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항목으로 대체하였음.

주요업종의 설비투자압력지수

(단위: 전년동기대비 %)

산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석유산업	8.1	-2.8	-2.8	-4.5	7.2	-1.2	-9.8	-2.2	-5.0
석유화학	-0.8	3.1	2.9	-12.1	6.4	4.0	1.1	4.3	-2.0
철강산업	-1.1	1.4	1.9	-20.4	3.9	6.3	0.6	0.5	6.0
조선	-7.3	-10.2	-0.3	31.6	12.9	-16.7	17.6	-5.3	14.4
IT 산업	-0.5	-3.6	1.8	1.7	1.9	3.8	-8.6	16.3	11.7

주: 설비투자압력=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 생산능력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투자주도 성장의 필요성

- 인당소득 만달러에 도달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기여율이 일본은 물론 미국(8.9%)보다 낮은 7.6%에 그쳐 설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
 -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볼 때 설비투자증가가 높을수록 소득배가를 달성한 기간이 짧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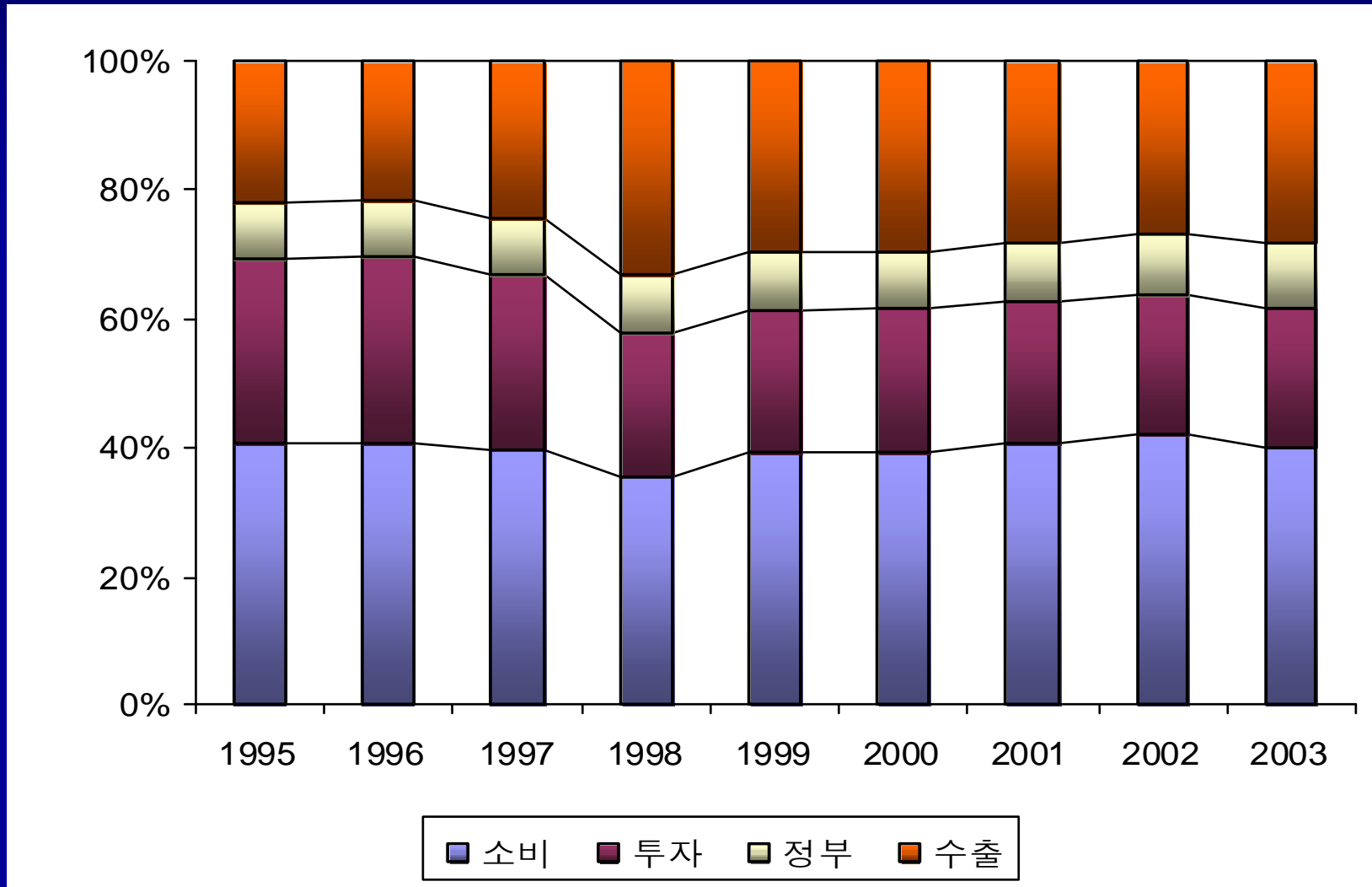
주요국의 설비투자 성장기여율 비교
(1인당 GNI: 1만달러 → 2만달러 기간중)

(단위: 연평균,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경제성장률	3.2	2.4	2.3	3.4	9.3	5.5
설비투자증가율	4.8	4.5	4.1	8.8	10.8	3.1
설비투자기여율	8.9	13.9	15.1	27.8	20.5	7.6
1인당 GNP : 1만달러→2만달러 기간	10년 (78 →88)	9년 (87 →96)	11년 (79 →90)	6년 (81 →87)	5년 (89 →94)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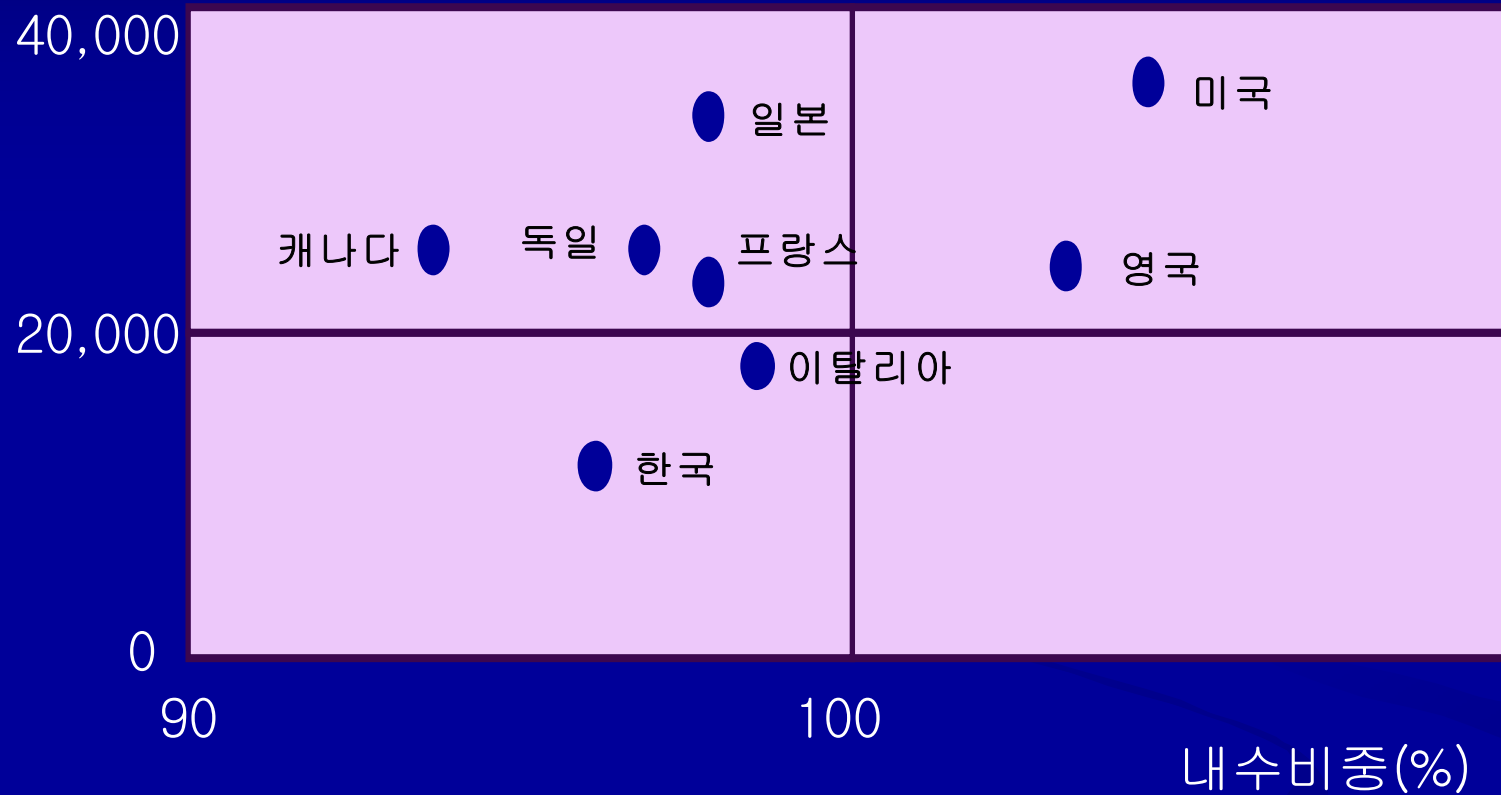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 재작성

수출과 내수, 정부비중



선진국의 내수비중

1인당 GDP(달러)



주: 내수비중 = $100 * (\text{총소비} + \text{총투자}) / \text{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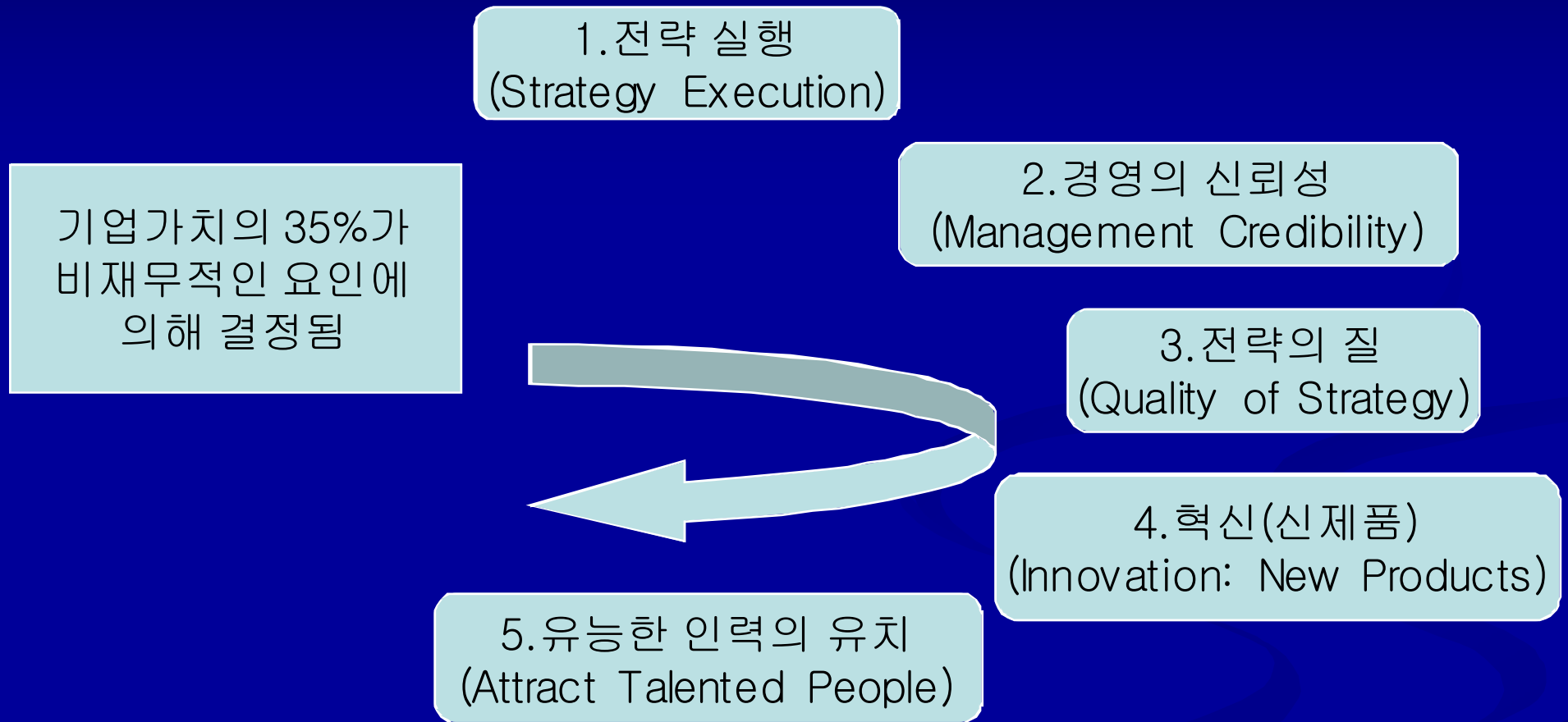
자료: OECD

R&D 역량의 확충방안

- R&D의 글로벌화: 다핵적 R&D센터의 설립과 범세계적인 기술(인력) 조달
- 외부기술 Out-sourcing의 확대: 대학·벤처기업·경쟁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 적극 활용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I]

: 비재무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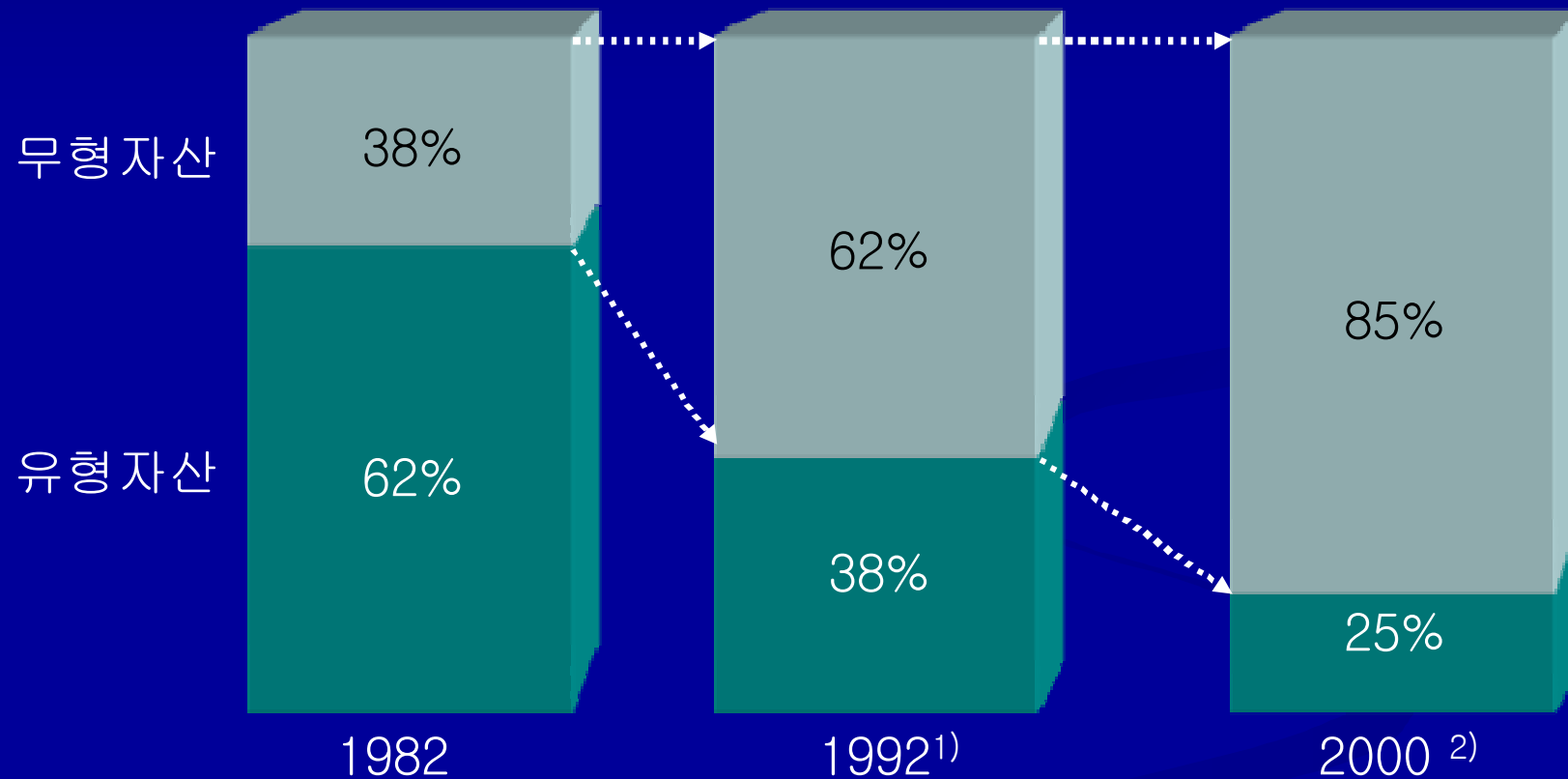


전략 실행이 기업가치의 원천이다.

경영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중요성[II]

: 무형 자산

가치창출의 원천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 쪽으로 이동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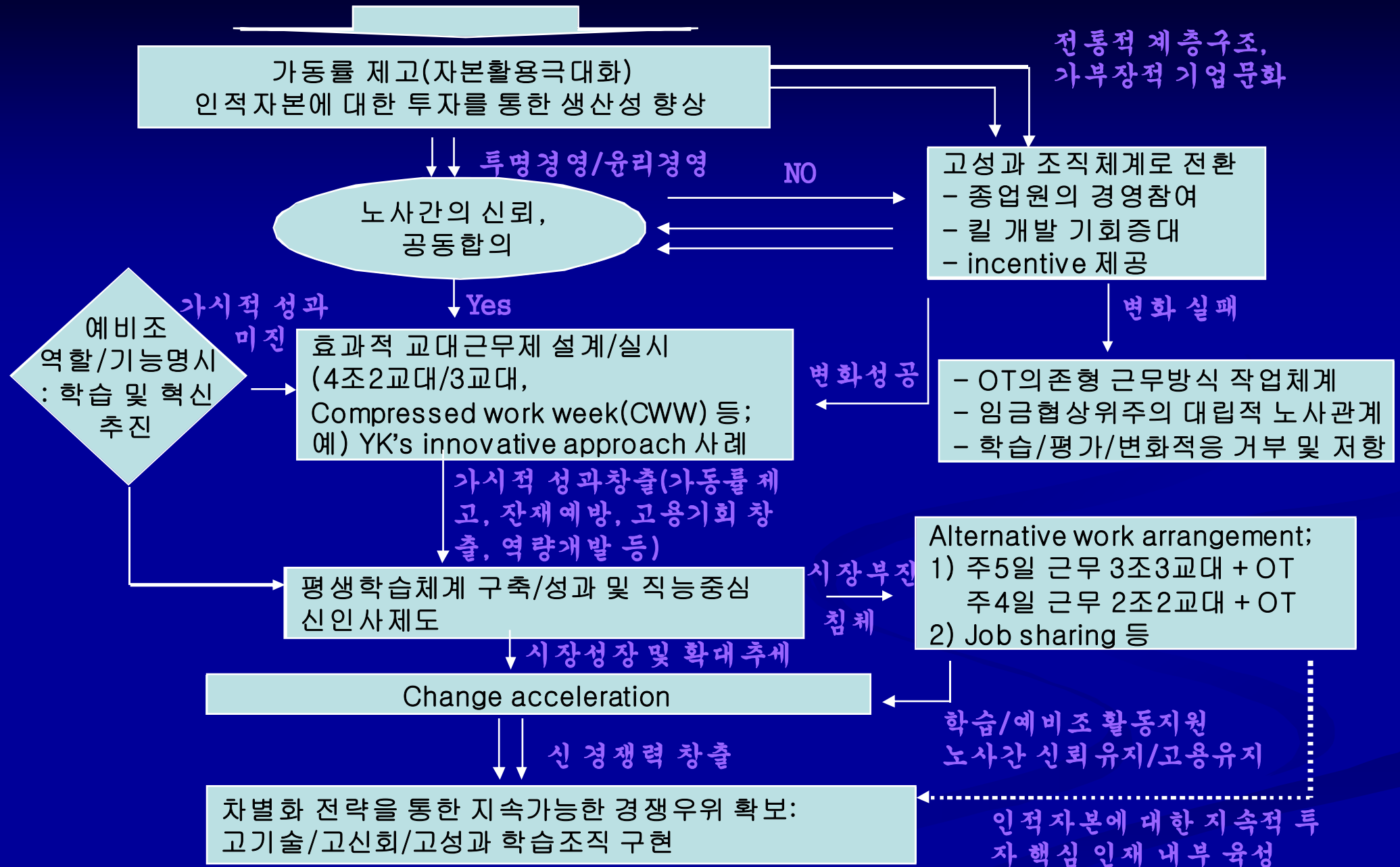


자료: 1) Brookings Institute: 1992

2) Baruch Lev analysis of S&P 500 Companies : 2000

Adapted from a slide by The Balanced Scorecard Collaborative, Inc copyright 2000

경쟁환경의 변화, 기술변화, 중국의 급부상, 근로시간 단축추세



감사합니다!!!